진관사, 조선 시학의 보고였다

〈寶庫〉



시로짓다, 조선 1·2

박해진 지음 / 나녹 / 세트 7만5000원

태조~연산군 시학 흐름 고찰

천봉 만우·일암 학전 스님 행장

"사찰은 사유 압축된 지성 거점"



〈시로 짓다, 조선〉의 저자 박해진 씨.



조선 세종대왕의 명으로 사가독서당으로 지정됐던 서울 진관사는 매년 국행수륙재에 집현전 학자 6인의 위패를 모시고 추모재를 봉행하며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세종대왕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직무에 방해받지 않고 독서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는 재가 독서 형태였으나, 1442년(세종 24년)에는 독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진관사를 사가독서 장소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박팽년· 성삼문·신숙주·이개·이석형·하위지 등 집현전 학자 6명이 수학했다. 오늘날 진관사 입구에 '사가독서터' 표지가 세워지고 일대가 '한글길'로 조성된 배경이다. 진관사는 매년 국행수륙재에 이들 학사 6인의 위패를 모시고 추모재를 봉행하며 그 전통을 기리고 있다.

〈시로 짓다, 조선〉은 조선을 '숭유억불'이라는 도식으로만 이해해 온 통념을 넘어, 조선 전기 불교 시학 전통과 국가 언어 정책의 긴밀한 연관을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진관사를 중심으로 전승된 시문 자료와 기록을 분석해, 불교 언해 사업과 출판 정책이 세종 대 국가 언어 정책과 맞물려 작동했음을 밝힌다.

조선에서 시(詩)는 하나의 문학 장르가 아니라 인재 선발과 정책 집행의 기준이 되는 '통치의 언어'였다. 저자는 훈민정음이 이러한 문장 질서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도구였고, 이 과정에서 불교가 지닌 언어철학과 수행 전통이 사유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또 진관사와 회암사 등 사찰은 당대 시학과 사유가 축적된 지성의 거점이었음을 밝힌다.

저자는 총 2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속에서 중국 시성(詩聖) 두보의 문학 전통이 조선 문장가들 사이에서 어떤 권위를 지녔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종 대 문학 정책과 훈민정음 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훈민정음 반포 이후 전개된 불교 경전 언해 사업, 사가독서제 시행, 시학 부흥 정책 등을 통해 조선 문자 문화의 발전 과정을 조망한다.

이 책의 또 다른 성과는 천봉 만우 스님(1357~1450?)의 행장을 복원한 대목이다. 행장에 따르면 만우 스님은 충주 청룡사에서 출가해 회암사 주지를 지냈으며 이숭인, 성석린 등과 교유했다. 특히 1447년 안평대군의 초청으로 91세에 회암사에서 인왕산으로 건너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의 제화시(題畫詩)를 남겼다. 저자는 일본 덴리대학 중앙도서관 소장 〈몽유도원도시화권〉의 '몽유도원도 찬시'를 촬영해 공개했다.

일암 학전 스님(1407~1500?)은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흥천사와 진관사, 장의사, 불암사, 패엽사를 중심으로 불법과 시학을 펼쳤다. 1442년 진관사 주지로 있으면서 사가독서를 통해 집현전 학자들과 교유했고, 이들이 지은 연구(聯句)를 채록해 〈진관요람〉을 펴냈다.

저자는 "천봉 만우와 일암 학전은 조선 초기 불교사의 핵심 인물"이라며 "특히 천봉 만우는 세종의 '시로 짓는 조선'을 도운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평가했다.

책은 1권에서 태조부터 세종까지, 2권에서 문종부터 연산군까지의 역사와 시학 흐름을 짚었다. 부록에는 천봉 만우 약전, 일암 학전과 교유한 문인들의 작품 목록, 진관사 사가수창 연구 4수 등을 수록했다.

저자 박해진 씨는 사진가로 활동하며 1998년부터 전통 건축 해체 보수, 정밀실측 현장을 기록해 〈선암사의 건축〉(2007) 등을 펴냈다. 2014년에는 신미 대사의 발자취와 훈민정음 창제사를 연구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2014)을 출간했다.

하루 한 장, 마음밭을 일구다



마음 글밭

원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2000원

하루 한 장 필사로 일구는 마음밭

비움·회복·채움·실천의 100일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순 없다. 그러나 누구든 지금부터 시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끝맺음하느냐, 이다."

– '시작보다 중요한 것'

속도의 시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단단한 독서법인 '필사'가 주목받고 있다. 빠르게 훑어보고 넘기는 대신,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 쓰며 자기 안으로 들이는 묵직한 울림 덕분이다.

〈마음 글밭〉은 원영 스님의 문장 세계를 응축한 필사집이다. 제목처럼 '마음의 글밭'을 일구듯, 하루 한 장씩 100일 동안 문장을 따라 쓰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구성했다.

100일 여정은 다섯 단계로 나뉜다. '비움'에서는 오래 붙들고 있던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회복'에서는 상처 난 마음을 돌본다. '채움'을 통해 새로운 다짐을 쌓고, '실천'에서 이를 일상의 태도로 옮긴다. 마지막 '리셋'은 다시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다잡는 법을 기억하는 단계다.

중간중간 배치된 '쉬어가는 시간'은 간단한 질문과 명상 안내를 통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필사는 내 안의 깊은 곳에 씨앗을 심는 일이며,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도록 기다려 주는 일"이라는 원영 스님의 말처럼, 마음밭이 자비의 꽃으로 무성할 수 있도록 '100일 필사'를 시작해 보자.

여수령 기자

당신의 이기심은 깨어 있는가?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지음

민족사

2만3000원

'나'를 구하는 현명한 이기주의

현대적 비유로 풀어낸 불교 교리

불교에서 '이기심'은 고통을 낳는 마음의 작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정진 중인 쿠바 탐디(이선재) 스님은 신간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를 통해 이 통념을 흔든다. 스님은 스스로를 '갈애(渴愛)와 집착을 안고 사는 이기적 존재'라고 고백하며, 수행자로서의 정직한 성찰을 건넨다.

저자는 오랜 시간 사회 현장에서 청년들과 호흡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일했고, 이후 라오스로 건너가 청소년센터 자원활동가로 일하다 숲속 절 '왓 빠 나쿤노이'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인도와 스리랑카, 네팔 등지를 순례한 후 현재 라오스 숲속 절 나쿤노이에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은 수행과 순례의 과정에서 만난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참구하던 어느 날, 그 질문이 '나는 무엇인가'로 바뀐 것. 왜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고 늘 싸우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던 중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만난다.

저자는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도킨슨의 선언을, 붓다가 고통의 근원으로 지목한 '갈애'와 나란히 놓는다. 유전자가 맹목적으로 자신을 복제하려는 경향성과, 갈애가 멈추지 않고 윤회를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강력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맹목적인 작용을 넘어 '깨어 있는 이기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과 자유를 얻는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미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에 담겨 있다."

저자는 인간 욕망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도덕적 비난이나 죄책감 대신 이해의 출발선을 마련하고자 한다. 스님이 말하는 이기심은 탐욕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태도, 나로부터 삶을 바로 세우려는 '깨어 있는 힘'이다. 붓다 역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난 구도자였다. 내가 먼저 평온해야 자비도 가능하다는 '현명한 이기주의'가 이 책의 중심 메시지다.

저자는 욕망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욕망을 억누를수록 왜곡되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욕망이 작동하는 구조를 깨어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의 이익을 좇을 권리는 있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는 없다"는 문장은 이기심의 윤리적 경계를 분명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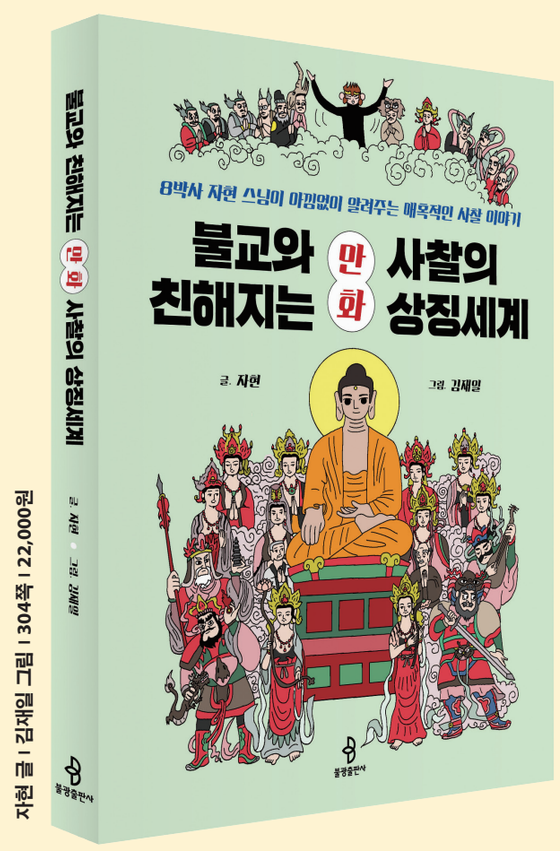


사미들과 대화하는 쿠바 탐디 스님. **사진 제공=민족사**

난해한 불교 교리를 현대적 비유로 풀어낸 점도 흥미롭다. '무아(無我)'를 설명하기 위해 홀로그램 공연을 예로 든다. 무대 위에는 분명 가수가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빛과 데이터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자아 역시 유전자와 환경, 기억이라는 데이터가 모여 형성된 일시적 구성물이라는 설명은, 추상적 교리를 생생한 이미지로 전환한다.

1부에서 불교의 교리를 설명했다며, 2부에서는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법을 안내한다. 이어 3부에서는 공존과 공생의 실천법을 제시한다.

여수령 기자



불교와 친해지는 만화 사찰의 상징세계



"불교와 친해지는 특급 마법이 시작된다!"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아낌없이 알려주는 매혹적인 사찰 이야기!

문체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세계 上·下』
그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만화로 다시 태어났다!

청소년도 재미있게 읽고, 성인도 새롭게 배우는 가장 쉬운 불교 인문학!
복잡한 설명은 줄이고 이야기와 재미는 더해
단지 즐겁게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세계관이 저절로 이해된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